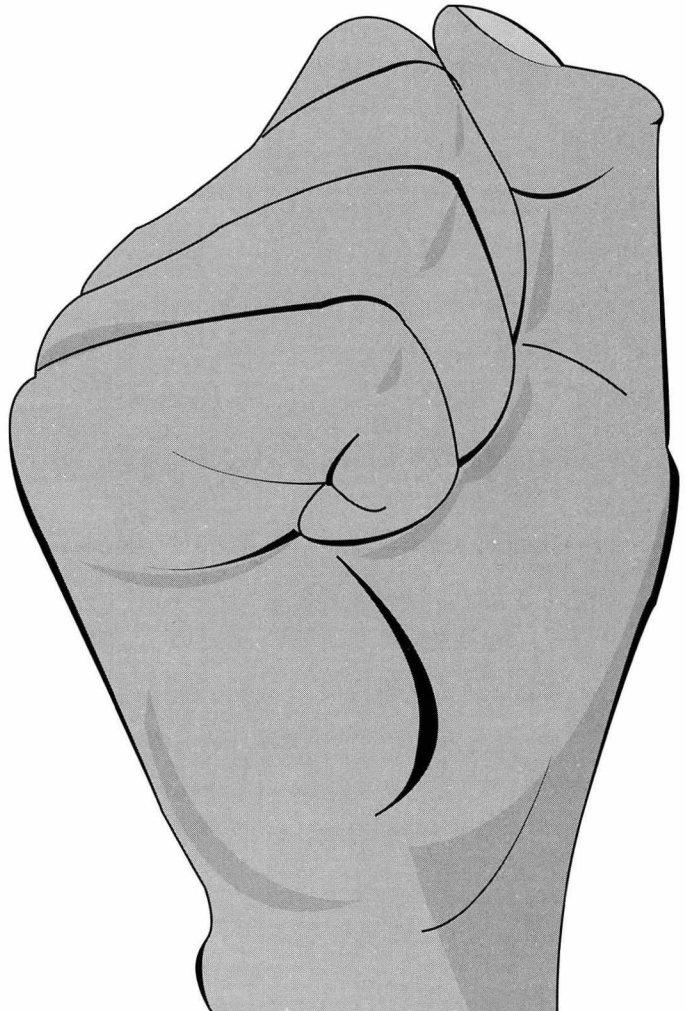


2007년도 농협 예산대의원총회의 필승 대응방안 (2)

|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

지난 달에 이어 농협 예산대의원총회 대응 방안을 연재합니다. 한-미 FTA 저지 투쟁, 특히 11월 22일 농민총궐기 투쟁 준비로 힘드시를 압니다. 하지만, 농업·농촌·농민 회생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시고, 신명나게 싸워 멋지게 승리하는 한농연이 됩시다!

- 편집자 주 -



VI. 필승 준비 5단계 : 지역농협의 고의적인 쌀값 낮추기에 강력 대응하자!

한국농어민신문에 의하면, 10월 15일 현재 평균 쌀값은 작년 대비 6.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또한 올 수확기 직전 농협 및 민간 쌀 재고가 59만석에 불과하고 쌀 생산량도 86만석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경기, 강원, 충북 지역부터 쌀값 하락 추세가 심상찮다. RPC들이 나락 매입가격을 40kg 포대 당 1천원 ~ 5천원 낮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 지역 RPC 조합장들은 아예, 쌀 매입가격을 낮출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충남 및 전라도 · 경상도 지역 RPC들마저 쌀값을 후려치려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10월 중순에는 경남 진주시 일부 농협들이 쌀값 하락을 시도했다가 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저지되기도 했다.

농협 RPC들이 개소당 1억 5천만원씩 적자를 본 이유는, 농협 자체의 영업 능력이 떨어지고 지역연합 차원의 시장 개척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행사용 “미끼상품”으로 저가에 쌀을 공급하거나, 민간 도정업체에 덤핑으로 나락을 대량 처분하면서 발생한 적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농협의 경영 및 영업 실패로 인한 RPC 적자를 애꿎은 농민조합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

지역농협들이 집단적으로 자체수매가를 후려칠 경우, 민간 업자들의 매입가격은 물론 정부 공공비축 최종 수매가의 하락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일부 농협들이 정부 공공비축 잠정매입가격인 4만 8천원 이하로 수매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농협 자체 수매가를 그 이상으로 잡도록 예산 대의원총회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방만한 농협 RPC의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력 · 조직 · 영업 전략 등의 구조개선이 절실하며, 연합 RPC 운영을 통한 공동 브랜드 육성 방안 같은 것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특화사업, 유통활성화사업 등 각 지역별로 다양한 당면 농정 현안이 산적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지역농협이 지자체나 지방의회 등과 함께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해주겠다” 하면서 농정 현안에서 어물쩍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농협 이감사와 대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VII. 실전 대응 단계 : 대의원총회 진행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구사하자!

총회 일시는 개최 7일전 상정 안건 및 일시 · 장소가 게시판에 공지되고 대의원들에게 통지되었다. 회의 자료는 대의원들에게 예산안을 첨부하여 통지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도 끝났다. 한농연 출신 3~5명의 이감사

와 대의원을 조직한 홍길동 회원은, 그들과 함께 총회 당일 다룰 안건 및 발언 순서 등을 포함하여 총회 대응 전술을 준비하였다. 이제는 어떻게 구사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만 남았다.

우선 총회 당일 입구에서, 조합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라. 보통 회의장 앞에 예산안, 식권, 회의 비만을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농연 회원들이 동네 결혼식 잔치에 온 것이 아니잖은가? 농협법, 정관, 제규 정집은 당연히 준비되어야 할 서류다. 또한 총회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각종 장부, 공문 등)는 임직원들이 즉각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당당히 요구해서 받아보도록 하자!

보통 예산 대의원총회의 식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 I.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 II.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III. 의안채택
- IV. 차기 예산안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
- V. 기타 토의
- VI. 폐회선언

의안채택시 긴급의안으로 “06년도 자체매입가 설정 및 RPC 구조개선의 건”을 올리도록 한다. 한농연 출신 장길산 대의원이, “농협 RPC가 거액의 적자를 봤다는 이유로 올해 자체매입가를 턱없이 낮추려고 하는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적정선의 자체 매입가 설정이 필요하며, 방만한 농협 RPC의 구조개선이 절실하므로 긴급 의안채택을 요청합니다!”라고 발언한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긴급의안 채택 및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한농연 대의원총회 드림팀 사이의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있다. 판소리를 할 때 명창과 고수가 “얼썬! 좋다!”하며 주고받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아까 전 장길산 회원이 “우리 농협의 쌀값이 공공비축 매입가격 4만 8천원 이하로 책정했는데, 5만 1천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농협만 살고 농민은 죽으란 말입니까?” 하면, 홍길동 및 허준 회원은 “옳소!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돋구는 식이다.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면, 홍길동 대의원이 예산서 뒷편의 부속명세서 산출근기에 따라 각 항목별 금액의 타

당성 여부를 질의한다. 직원 중식비 단가로 7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중식비 산출근기 : 7천원×25일×20명×12개월), 조합원들은 보통 5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4천원이나 3천 5백원에라도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깎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전에 분석한 부속명세서에 근거하여 조정삭감하라!

이외에도 지난 달 1편에 나온대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상에 무리한 수치가 있을 경우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 특히 매출총액 대비 판매관리 비용을 75%선으로 인하하고, 교육지원사업비는 총액 감소는 피하되, 환원사업비나 영농지도비가 엉뚱하게 지출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 묻고 조정해야 한다.

이런 비용 절감이 전제되어야 대출금리와 연체금리·가산금리를 줄일 수 있다. 조합 신용·경제사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조정해 나가도록 한다.

예산안 및 사업계획 심의 때 다른 대의원들이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서 조합장 및 임원들이 분위기를 바꾸려 한다면, 이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논의중인 안전부터 확실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조합장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총회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면서 발을 뺀다면 총회 부결까지도 강력히 경고하며 엄중 대처해야 한다. 이 때는 집중적으로 다른 회원들이 지원에 나서라!

예를 들어 장길산 회원과 허준 회원이, “총회가 무산되더라도 농협법과 정관에는 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총회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장에게 있습니다”고 발언하라. 그러면서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아 보고하기 전까지는 예산안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VIII. 나가며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장과 임직원은 농협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농협법과 정관, 제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을 뿐임을 명심하라. 농협 대의원 개개인은 방과제 삼발이로 비유할 수 있다.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단단한 방과제 삼발이가 되고, 그것을 차곡차곡 견고하게 쌓아야 농협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방과제가 되는 것이다.

대의원은 지역농협 개혁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틈날 때마다 학습하고, 조직하고, 토론하라! 강력한 팀웍으로 힘있게 실천하라.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